

변호사 선임 후 주심 대법관 지정

大法, 학연·지연 등 연줄 차단

대법원에 상고한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의 학연·지연 등을 미리 따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오던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불공정 재판 시비를 막기 위해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를 일단 지정하되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야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고심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4명의 대법관 중 1명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다른 대법관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전에는 민·형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때 동시에 주심 대법관도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을 넘은 뒤,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은 답변서 제출기간(10일)이 지난 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다.

상고 이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주심 대법관 지정 전에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야 한다.

연합뉴스

“기록만 보고 1심 파기는 안돼”

大法, 증인 태도·심증까지 고려해야

기록을 신빙성의 판단 근거로 삼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 내용과 증인 진술에 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생하게 증언을 청취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억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일부를 토지 가압류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증인의 모습·태도·진술 위양상 등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해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한다. 명백하게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1심을 유지하는 게 현저하게 부당할 때가 아니라면 그 판단이 항소심과 다르다고 함부로 1심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사채업자인 이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황상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추가 조사한 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또 물류대란...” 긴장 고조

광양항 물동량 평소의 30%로 격감

광주 삼성·금호타이어 등 수출 타격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올까 겁이들면서 광양항은 처리 물동량이 평소의 30%로 격감하는 등 본격적인 물류대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광주전자 등 광주·전남의 기업들도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지역 경기에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

◇광양항 물동량 격감=평일 컨테이너 4천TEU를 처리하는 광양항은 4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30%도 채 안 되는 1천TEU 가량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항은 주말 2천700여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지만 지난 2~3일에는 1

천93TEU(40.5%)에 그쳤다. 광양항의 경우 하루 평균 1천200여 대의 운송차량이 출입하며, 이 중 700여 대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양항 화물연대 파업 관련 비상대책반’ 관계자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계속될 경우 부두에 재고가 쌓이고 선사(船社)들이 광양항에 하적을 하지 않는 등 지역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도 피해 속출=삼성광주전자는 4일 140TEU의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물류운송업체인

‘극동컨테이너’가 화물연대 소속이어서 자칫 지난 3월의 ‘물류대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은 4일부터 하루 평균 3만6천본(30억원 상당)의 타이어 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공장의 운송차량 90여 대는 모두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운송차량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이 아니어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품운송과 수출물량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육로 운송이 막힐 경우 기업들은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운송비(20피트 컨테이너 기준)는 ▲광주~광양 40만원 ▲광주~부산 80만원 등 두 배가량 치솟는다. 지난 3월 파업시 삼성전자 등 한산단은 하루 최고 25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곳곳에서 충돌=광양경찰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장 성모(40)씨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집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5시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입구에서 화물차량 3대의 유압밸브 등을 절단,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이다.

지난 1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도로에서는 주차돼 있던 정모(44)씨 등의 화물차 8대가 앞유리가 깨진 채 발견됐고, 목포·곡성·함평 등에서도 화물차 4대가 부서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화물연대 비조합원인 점으로 미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을 부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조선대 ‘유학생 친선 체육대회’ 조선대 대외협력부(부장 배상현 교수)는 베트남·일본·중국 등지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 100여 명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일 대학 운동장에서 ‘유학생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참가 학생들이 민속놀이인 줄다리를 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주범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2월1일~2007년 1월31일까지로,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운전이 자주 적발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평일엔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전 예방에 나서며, 주말·휴일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나들이객이 북적이는 유원지·등산로 주변에서

단속을 전개한다. 또 주기적으로 운수업체를 방문,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용 하는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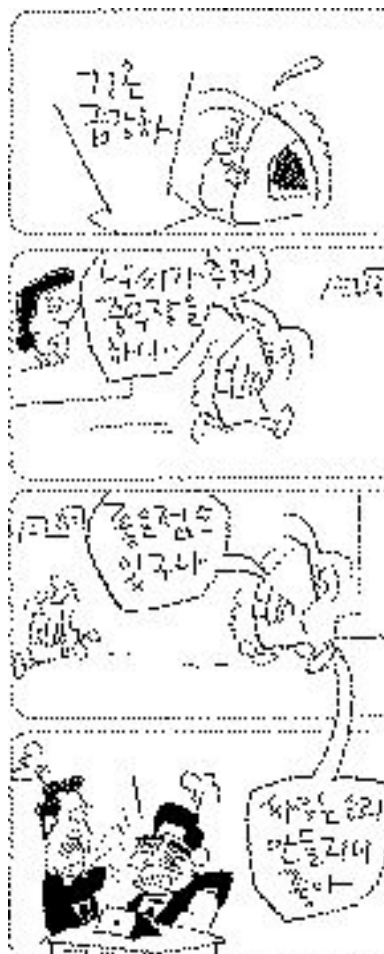
앞서 광주 북부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북구 무등산 산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장소와 단속기법

을 다양하게 전개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면서 “녹색 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도 함께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올해(1월~10월) 광주·전남에는 2천24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 83명이 숨지고 3천648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16.9%(292건) ▲사망 31.7%(20명) ▲부상 14%(447명)가 증가한 것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침 김동우 (6992)



화물연대 왜 파업 잦나?

화물연대의 파업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과 후진적인 운송체계에 원인이 있다.

지난해 화물 운송량은 5억2천600만t으로 지난 1997년 4억9천900만t에 비해 5.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화물차 사업자들은 동기 대비 17만대에서 32만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건교부는 현재 화물차 3만6천여 대 가량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물 시장의 전근대적인 운송체제와 관리체계, 왜곡된 시장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 시장은 특성상 다단계 위탁 및 주선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고 대부분 화주~알선회사~운송사~화물 운전자(지입차주)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화물 운전자는 알선료 등을 떼일 수밖에 없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평등선도지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 최대단지!
평면면적: 80~90평, 120평, 150평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 062-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즉제불만처리부담이 규합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ac.or.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연예인에 히로병 우승 “돈내라” 협박

○히로병을 미끼로 돈을 내놓으라며 연예인을 협박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

○3일 검찰에 따르면 10월~11월 초 사이 가수 A씨와 B씨, 개그맨 C씨와 D씨에게 0.1g 분량의 히로병이 든 주사기 2~10개(100만원 상당)와 협박 편지가 들어있는 소포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됐다는 것.

○범인은 택배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소포를 직접 전달했으며, 현금화가 가능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가상계좌로 2억원씩 송금하라고 요구했는데, 당사자들은 머리카락 등 도핑테스트를 자발적으로 받고 무죄를 입증. /연합뉴스

지역경제의 든든한 힘

전남농협 상호금융

경축

전남농협 상호금융예금 10조원 달성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신원예금: 10조원 달성

*신원예금: 10조원 달성

*신원예금: 10조원 달성